The Alley



이야기 소개

이 이야기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레야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골목을 지나간다. 그녀는 골목을 깨끗이 청소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은 다시 더러워진다. 프레야는 지역 주민들을 모아 골목을 함께 청소하고 더 보기 좋게 만들도록 한다. 지역 시의회는 프레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골목을 그녀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이 책을 읽는 팁

이 책에 나오는 단어에 대해

- 아이는 파닉스 실력을 이용해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나면 소리를 하나씩 내어 읽고, 자연스럽게 이어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 다음 단어들은 자주 쓰이지만, 아이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anyone two
  책을 읽기 전에 아이와 함께 이 단어들을 읽어 보세요. 책을 읽다가 이 단어들이 나오면, 필요에 따라 부모님이 먼저 읽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읽기 전에

- 앞표지를 보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자아이는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나요?

  아이가 제목을 읽어 보도록 격려해 주세요.
  질문: 'alley'는 무엇인가요? (예: 집과 집 사이 또는 집 뒤에 있는 좁은 골목길)

- 질문: 왜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 아이가 뒷표지를 읽어 보도록 격려해 주세요.
  질문: 'Time for action'은 무슨 뜻인가요? (예: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뜻)

- 말해주기: 뒷표지에 등이 보이네요.

  질문: 이 등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나요?

- 2~3 페이지를 보며 이렇게 말해 주세요: Freya는 할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걸어가고 있어요.

  질문: Freya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읽는 동안

- 아이가 이야기를 읽어 보도록 해 주세요. 단어를 읽다가 머뭇거리면, 소리를 하나씩 읽은 뒤 이어서 하나의 단어로 읽도록 격려해 주세요. 예를 들어 s-ch-oo-l를 읽은 뒤 school이라고 읽어 보도록 해 주세요.

- 5 페이지를 읽은 뒤 이렇게 말해 주세요: Freya는 귤껍질을 'accidentally' 떨어트렸어요.

  질문: 'accidentally'는 무슨 뜻인가요? (예: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님)

- 8 페이지에서는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Freya와 할아버지는 왜 장갑을 끼고 쓰레기 집게를 사용한다고 했나요?

- 13 페이지까지 읽은 뒤 멈추고, Freya와 할아버지를 도우러 여러 사람이 온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질문: Freya와 할아버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 18 페이지를 읽은 뒤 아이에게 질문해 보세요: 'rota'는 무엇인가요?
  (예: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당번표)

  질문: 당번표는 골목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 19 페이지까지 읽은 뒤 멈추고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읽은 후

- 말해주기: 회의가 끝난 뒤 일어난 일을 보고 Freya는 놀랐어요.

  질문: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 질문: 신문에는 Freya의 골목에 대해 뭐라고 실렸을 것 같나요?

- 말해주기: Freya와 지역 사람들은 골목을 머물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어요.

  질문: 미래에는 이 골목은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 질문: 여러분이 사는 곳 근처에도 더 좋아졌으면 하는 곳이 있나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 24 페이지의 스토리맵에 있는 그림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림을 활용해 아이가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도록 격려해 주세요.

[The Alley]	
Alley	Groceries
Weed	Hoe
Litter	Upset
Dandelion	Delighted
Satsuma	Listening
Peel	Rota
Banana peel	Hanging baskets
Bin	No litter
Litter picker	Freya's Alley
Drink	

The Alley



Level 6 Fiction

The Alley (골목)

이야기 소개

이 이야기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레야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골목을 지나간다. 그녀는 골목을 깨끗이 청소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은 다시 더러워진다. 프레야는 지역 주민들을 모아 골목을 함께 청소하고 더 보기 좋게 만들도록 한다. 지역 시의회는 프레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골목을 그녀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 P2: 프레야의 집이 있는 거리 끝에는 작은 골목이 있었어요.

그 골목은 학교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 P3: 프레야는 그 골목을 따라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흙과 잡초,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를 피해 발걸음을 옮겨야 했어요.

☐ P4: 방과 후에 프레야는 보통 가게에서 간식을 하나 사 먹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프레야에게 작은 귤 하나를 주셨어요.

프레야는 그 귤을 바로 먹기 시작했어요.

☐ P5: 그들이 집으로 걸어가던 중, 큰 검은 고양이가 그들을 향해 화난 듯이 쉭쉭 소리를 냈어요.

프레야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프레야는 실수로 귤 껍질을 떨어뜨렸어요.

□ P6: 프레야는 땅에 떨어진 귤 껍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 귤 껍질은 빈 병과 종이봉지, 음식 포장지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 골목, 누가 좀 치워 주기는 할까요?"라고 그녀가 물었어요.

□ P7: 프레야는 집에 와서 귤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우리 아침에 이 골목 좀 청소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물론이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 P8: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프레야에게 긴 손잡이 쓰레기 집게와 빈 상자를 주셨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프레야가 말했어요.

□ P9: 프레야와 할아버지는 쓰레기를 치우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존스 씨가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는 할아버지와 프레야에게 마실 것을 권했어요.

□ P10: 존스 부인은 큰 빗자루로 골목을 쓸었어요.

"저는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그녀는 말했어요.

□ P11: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골목을 따라 걸어갔어요.

그들은 모두 잠시 멈춰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 프레야의 학교 친구 아제이가 말했어요.

□ P12: 12시가 되자, 할아버지와 프레야는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갔어요.

식사 중이던 그때, 누군가가 정원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연 사람은 아제이와 그의 아버지, 초프라 씨였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제이가 말했어요.

□ P13: 프레야는 골목에 자란 잡초들에 대해 아제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점심을 먹고 난 뒤, 프레야와 할아버지는 다시 골목으로 향했어요.

초프라 씨와 아제이는 날카로운 괭이로 골목의 잡초를 제거했어요.

□ P14: 하루가 끝날 무렵, 골목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프레야는 매우 기뻐했어요.

하지만 다음 주가 끝날 즈음, 골목은 또다시 지저분해졌어요.

□ P15: 프레야는 속상했어요.

"우리는 다시 골목을 청소해야겠네요!"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하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 P16: 그들은 할아버지 정원에서 마을 회의를 열었어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프레야는 매우 기뻤어요.

□ P17: 할아버지는 프레야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하셨어요.

프레야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꼭 말해야 했어요.

"우리 모두 이 골목을 사용하잖아요.
모두 함께 골목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 P18: 존스 씨가 골목 청소 당번표를 작성했어요.

당번표에는 사람들이 언제 청소를 도울 수 있는지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프레야는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당번표에 적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 P19: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골목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을 돕고 싶어 했어요.

프레야는 기뻐했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 P20: 첫 주에 존스 가족은 울타리에 태양광 등을 달았어요.

둘째 주에는 할아버지가 걸이 화분을 달았어요.

셋째 주에는 동네 가게들이 벤치를 기증해 주었어요.

□ P21: 넷째 주에는 할아버지에게 시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들은 골목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 P22: 다섯째 주에는 시청 사람들이 골목을 살펴보러 왔어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먼저, 그들은 쓰레기통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안내판 두 개를 세웠어요.

□ P23: 프레야와 친구들은 새 안내판 앞에 모여 섰어요.

그들은 신문에 실릴 사진을 찍었어요.

□ P24: 이야기를 다시 말해 보세요.